

# 폭설·한파...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제 가동

### 광주시 내년 3월 15일까지 대책기간...민관군 합동간담회 경찰·소방 등 10개 기관 참여 '폭설 교통소통 합동훈련'도

광주시는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는 폭설·한파에 대비해 기상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

고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조를 운영한다. 또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예방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자율방재단, 건설기계협회, 열관리시공협회, 한전, KT, 503여단, 경찰청, 교육청 등 지역 민·관·군이

참여하는 사전 합동간담회를 실시하고 제설 인력·장비·자재 확보 등에 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기관별로 재난 대비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초동대응 및 응급복구 지원방안 등을 점검했다. 또 21일 오후에는 서구 상무시민로(상무시민공원 인근) 도로에서 서부경찰, 서부소방, 5개 자치구, 종합건설본부, 자율방재단 등 10개 기관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견인차, 제설차, 구급차 등 차량과 장

비 24대를 동원해 '폭설대응 교통소통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시간당 10cm의 기습적인 폭설이 내려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추돌 사고가 일어나 부상자와 차량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하고 긴급출동, 상황보고, 교통통제, 구급차 환자수송, 고립차량구조, 제설작업, 사고차량 견인 등 각 기관별 역할과 임무를 확인하고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민 일주일에 한번만 채식하면 광주 온실가스 배출량 3% 줄입니다”

### 녹색식생활 실천 정책세미나

광주시민이 일주일에 한 번만 채식 식단으로 식사를 했을 때 광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황철호(국제기후환경센터 책임연구원) 박사는 위 같은 연구결과와 함께 이는 나무 6600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높은 효율을 가진다고 발표했다. 광주시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행동비전네트워크는 최근 녹색식생활 실천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를 가졌다. (사진) 이번 세미나는 2016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가능성과 문제점을 민, 관, 전문가가 함께 토론했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의철 박사(배지닥터 사무국장)와 황철호 박사(국제기후환경센터 책임연구원)이 각각 녹색식생활 실천의 필요성과 건강상의 이점,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빛고을어깨동무소통방 개소 1년만에 민원·분쟁 145건 해결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빛고을어깨동무소통방'이 지난해 11월 개소 후 지금까지 145건의 민원 및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타운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복지재단 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문혜옥)은 22일 "21일 빛고을어깨동무소통방 개소 1주년 기념 평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타운 이용회원 증가로 인한 회원들의 다양한 민원증가와 회원 간 갈등 및 분쟁을 타운 회원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22일 시니어형에서는 전국 최초로 '빛고을어깨동무소통방'을 개소해 운영 중이다. 빛고을어깨동무소통방은 교류와 협력, 나눔과 배려, 치유와 공감, 소통과 타협이라는 4가지 비전을 토대로 분쟁조정자인 '화해지원인' 11명이 2인 1조로 오전, 오후로 나눠 매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해지원인은 타운회원들 중 광주시와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주최한 주민화해지원인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상담관련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다. 문혜옥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은 "빛고을어깨동무소통방은 올해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 공모한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소통방 지원사업'에 선정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혁신 리더십으로 광주발전 앞당겨 달라” 이용섭 광주시장이 22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장회의에서 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혁신 성과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소명의식과 기존의 관행과 틀을 깨는 혁신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늘어나는 유기동물...광주시 동물보호 예산 늘렸다

### 내년 5억3000만원 편성

광주시는 관내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동물보호소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광주시동물보호센터는 지난 2011년 건립돼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보호·관리하는 동물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유기동물 발생은 3669두로 하루 평균 10두가 발생하는 등 매년 유기동물 수는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10월말까지 2875두가 발생해 현재 381두가 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광주동물보호소에 대해 올내는 추경 예산 4000만원을 포함해 4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5억3000만원의 예산

을 편성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매년 유기동물의 증가와 이러한 동물들의 단순한 보호·관리 수준을 넘는 동물복지 실현하기 위해 유기동물 600두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센터와 입양센터, 동물놀이터, 교육시설 등을 아우르는 가정 '반려동물 종합보호센터' 건립을 계획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서 '전국 마을기업인의 날' 행사 22·23일 홀리데이 인 호텔

전국 마을기업 관계자들이 광주에 모여 마을기업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광주시는 "22일부터 23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공동주최,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주관으로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전국 마을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시도 마을기업인과 공무원 250여 명이 참여해 마을기업 발전방안 토론회, 마을기업 제품 품평회, 역량강화 교육 등 실시한다. '마을기업 발전방향 토론회'는 마을기업

의 발전상과 실태를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마을기업이 건설하게 성장하고 정착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더불어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지원을 위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주)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 등 유통기업과 함께 '마을기업 제품 품평회'를 실시한다. 품평회에서는 컨설팅, 마을기업의 유통·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이 열린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유공자 포상,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설명회, 우수시책 발표 등 마을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 행정안전부에 지정된 전국 마을기업은 1514곳이며, 광주시에는 57개가 지정돼 활동하고 있다. 이중 연극마을 문화공동체 협동조합이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공동체 한마당 '누구나 친구가 되는 우리 동네'

### 28일 비엔날레전시관

광주시와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오는 28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제5전시실에서 2018 광주공동체 한마당 '누구나 친구가 되는 우리 동네'를 개최한다. 개최식에는 정종제 행정부시장, 김동현 광주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다. 한마당에서는 민선 7기 마을자치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유창복 성공회대 사회경제대학원 교수, 오병철 일등동네 주민협의회 공동대표 등의 '우리동네 발상 포럼'을 시작으로, '동전 하나라도 행복

했던 구멍가게의 날들'의 이미경 작가와 '우리가 사랑한 뽕집 성심당'의 김태훈 작가의 강연, 구와산 생활체조, 영정수 가세춤, 아카펠라 또는 클래식 공연 등이 이어진다. 고구마, 땅콩 등 깨기, 우동 나눔 등의 이벤트도 마련됐다.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우리동네뽕집전, 우리동네 학교, 우리동네상담소, 우리동네책방, 우리동네사진관, 우리동네활동전, 우리동네상점, 우리동네거리등을 주제로 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건축설계 당선작 선정

광주시는 지난 19일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건축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8월 일반설계공모 방식으로 총 3개 작품을 접수해 심사를 거쳐 전남 화순 소재 (주)리가온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건물 내부는 다채로운 체험공간으로, 외부는 광주의 안전을 밝히는 빛줄기와 재난극복을 의미하는 꼭 튼 손을 형상화한 조형디자인을 선보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

시는 설계업체에 시설계획권을 부여해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완수할 예정이며, 누구나 장애 없이 체험이 가능한 체험관 건립을 위해 기본설계부터 꼼꼼히 챙겨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북구 오지동 5-10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은 총 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994㎡,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내년 6월 착공해 2020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